

## 성 서비스 영역에 참여한 탈북여성의 경합과 생존전략\*

권금상\*\*

이 연구는 탈북인 인구 중 주류를 이루는 탈북여성들 중에 성 서비스 영역에 참여한 여성들을 통해 ‘일’에서의 경합과 생존방식을 조명한다. 이를 위해 탈북여성들이 한국으로 오게 된 과정과 성 서비스 영역에 진입하게 된 배경, 참여활동을 통해 일상에서 구축된 경합과 생존방식을 여성적 관점에서 두텁게 살폈다. 연구결과, 이들은 북한에서 성 서비스 관련 일을 한 적이 없었으나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경험하였고 일부는 성 서비스 영역에서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이들은 국경이라는 물리적 사선 넘기뿐 아니라 금기의 일탈노동영역이란 심리적 사선 넘기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당면한 어려움은 정착 초기에 브로커 비용의 완불 문제와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원거리 가족에게 송금해야 하는 의무에서 기인하고 있었다. 이들의 성서비스 영역 참여는 낮은 자존감과 수치심이 심리적 경합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자신의 몸을 활용한 경제활동이라는 정당화와 여성으로서 북의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는 자기지지가 생존전략으로 나타나 분단사회의 새로운 젠더 풍경을 양산하고 있다.

주제어: 탈북여성, 성 서비스 영역, 원거리 가족, 경합, 생존전략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3A2065782).

\*\*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 1. 들어가며

이 연구는 성 서비스 영역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갖게 된 내적 경합과 생존전략을 조명하려는 시도이다. 탈북여성들의 성 서비스 참여를 일탈노동으로 규정하는 일방적 관점보다는 성을 매개로 하는 경제활동을 선택한 배경과 수행 속에서의 갈등, 새로운 규범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지향점이다. 이를 통해 탈북여성들이 한국 사회의 성 서비스 영역으로 진입하게 된 원인, 이동 경로와 그 경험을 여성주의 관점에서 두텁게 살피고자 한다. 탈북여성들의 성매매 문제는 언론에서 보도되어 왔지만 고발 프로그램의 카메라에 포착된 피사체였을 뿐, 이들의 목소리는 드러나지 않았다.

여성들이 성매매를 직업으로 선택하게 되는 일반적 이유는 가난한 여성들이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최저임금조차도 보장되지 않는 직업 밖에는 선택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sup>1)</sup> 탈북여성들의 성 서비스 영역으로 활동하게 되는 이유 역시 가난이라는 근본적인 토대 문제에서 출발할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탈북인들의 경우 입국 초기에 정착금과 주택 등의 정착을 위한 지원이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볼 때 성 서비스를 삶의 방편으로 선택한 취약계층 한국여성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혹은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31,827명(2018.6) 중 여성은 22,776

---

1) 김용화,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22권 3호(2010), 46쪽.

명으로 전체 탈북인 인구의 72%를 차지한다. 특히 2018년 한해 입국한 탈북여성의 비율이 87%를 나타내고 있어 평년보다 더 큰 비중으로 탈북민의 여성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여성 중심의 탈북인 증가는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과 ‘고난의 행군’ 이후 여성이 생존의 중심이 되는 가족문화 그리고 남한의 이데올로기적 대북정책의 결과로 볼 수 있다.<sup>2)</sup>

한국은 늘어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997년부터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 정책은 탈북인들의 한국정착에 필요한 정착금, 주택, 의료서비스, 일자리, 교육 등 복지차원의 지원 및 지급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십여 년 지속된 탈북인 대상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 2016 북한이탈주민정착실태조사에 의하면 탈북인들의 월평균 임금은 162.9만 원(일반국민 236.8만 원), 경제활동 참여비율은 탈북인 57.9%(일반국민 63.3%)이며 고용률은 탈북인 55.0%(일반국민 61.0%)을 나타낸다. 탈북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0.9%, 고용률이 67.8%인 데 반해 탈북여성은 각각 53.5%, 5.1%로 나타나 탈북남성보다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가 매우 취약하다.<sup>3)</sup> 탈북민들의 구직 상담 대상은 주위 북한이탈주민 45.1%, 이웃 30.8%<sup>4)</sup>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탈북민들이 자신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적인 제도를 통해 정보를 얻으려 하기 보다는 자신을 이해하는 집단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

---

2) 1998년까지 탈북민 수는 총 947명, 여성의 수는 116명(12%)으로 남성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3) 남북하나재단,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2017), 22~23쪽.

4) 남북하나재단, 위의 책, 25쪽.

냉전사회의 종식 이후 이주의 여성화는 세계화 시대의 징표로 가시화되어 왔다. 1990년대 전후로 현실 사회주의국가들의 몰락 이후 유럽으로 이주한 동유럽 여성들은 사회주변부에 배치되고 노동시장의 밑바닥에서 주류가 꺼리는 일을 도맡아 왔다.<sup>5)</sup> 지구화 시대에 있어 성매매는 성노동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하여 이주여성과 노동자 인종의 문제와 맞물려 왔다.<sup>6)</sup> 이주여성들이 주변화 된 돌봄 노동영역과 성 서비스 영역에 위치하는 경향은 세계화에서 드러난 젠더 불평등 현상과 맥락을 같이한다. 전 세계사에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은 한국에서도 탈북민의 여성주류화는 해가 갈수록 두드러지며 한국에서의 일자리 역시 주변화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분단체제의 이념 경쟁에서 탈북인들의 증가는 한국 체제의 승리를 상징해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들은 통일의 역군이란 상징성에 부합되기보다는 주변화되어 있고 주류화를 이루는 탈북여성들 중 다수는 경계를 넘는 과정에서 인신매매나 성 서비스 관련 노동 경험이 한국의 삶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사례는 한국 언론에서 탈북여성들의 성매매 관련 사건 보도들로 나타난다. 예컨대, 농촌 지역사회에 등장한 탈북여성들이 중심이 된 이른바 티켓다방에 관한 이슈들이다. 과거, 중국동포 여성들이 성매매 행위를 벌이다 단속대상이 되었던 농촌지역 다방이 최근 탈북여성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다.<sup>7)</sup> 탈북여성들이 한국 사람들보

---

5) 유정희, “세계화시대 유럽의 이주여성”, 『여성과 역사』, 9권(2008), 195~196쪽.  
 6) 이나영, “서평: 성매매를 여성주의적 입장’들로 ‘읽는다’는 것의 의미”, 『경제와 사회』, 77호, 265쪽.  
 7) 『인천일보』, 2017년 10월 30일. 티켓다방으로 내몰린 탈북여성 “경제력 어려움에 농한기 ‘성매매’ 성행,”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85025>; “티켓 다방’의 탈북 여성들 … 성매매까지,” KBS 뉴스, 2015년 11월 28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89964&ref=D>.

다 더 불안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은 비법의 영역에서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일탈 노동적 특성과 한국 내에서 생존조건이 어려운 현실로 인해 다양한 성 서비스 시장과 쉽게 결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탈북여성들의 성매매 현실에 관해 진행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탈북 여성들이 남한에 입국하여 유흥업소와 성매매에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은 낮은 연령, 부채, 북한과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성폭력 피해 경험, 북한과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성매매 경험, 그리고 이웃 관계로 나타났다.<sup>8)</sup> 남성들의 성매매 구매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결과와 성적 거래의 형태가 '성교 없는 성상품'으로 유사 성매매 상품의 형태로 다양화되고 더욱 분화되고 있다<sup>9)</sup>는 점에서 탈북여성들의 성 서비스 영역의 참여도 이러한 사회적 구조에서 결합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탈북여성들이 한국에서 성 서비스 영역에 진입하게 된 맥락을 가족 속의 성규범이나 성역할 등 여성문제에서 찾고자 한다. 탈북여성들에게 성별화된 규범이나 원거리 가족 속에서 주어진 여성으로서 기대는 현실세계에서 경합이 될 것이며 동시에 수행에 대한 자기 협상도 될 것이기 때문이다. 탈북여성들이 생명을 걸고 넘어온 한국에서 성 서비스 영역으로 진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어떤 경합 및 전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여 탈북여성 성 서비스 영역 참여의 위치와 함의를 찾는다.

---

8) 김재엽·김희진·조영시·B. Gantuya, “탈북여성의 유흥업소 및 성매매 유입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사회과학연구』, 21권 1호(2013), 76~113쪽.

9) 변혜정, “성적 거래의 변형과 확산의 정치학: ‘성교없는 성상품’ 업소(자유업)에서의 거래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연구』, 25권 3호(2009), 109~149쪽.

## 2. 연구방법 및 과정

심층면접 참여자는 성 서비스 영역 참여경험이 있는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했으며 면접 시기는 2017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이루어졌다. 성 서비스의 범주는 성매매자, 노래방 도우미, 티켓다방 종사자, 기타 성 상품 서비스 영역을 포함하였다. 참여대상은 지인의 소개로 세 명을 추천받은 뒤 눈덩이 표집으로 총 6명을 인터뷰하였다. 현재 금전적인 곤란을 겪어 정보 미공개조건을 단서로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도 있고, 열린 마음으로 탈북여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알렸으면 한다고 생각하여 참여한 사례도 있다. 이들의 정보는 가명 처리했다. 이들은 자신이 성 서비스 영역에 참여한 경험을 비밀처럼 가지고 있거나 가장 친한 사람이 아니면 공공연하게 말한 경험이 없다고 했다. 연구의 주제가 개인의 예민한 사적 생활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연구 참여자들과의 신뢰관계 형성이 매우 필요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일 자체에 대한 수치심뿐 아니라 자신 관련 한 정보가 한국뿐 아니라 탈북인들 그리고 북한 사회에도 밝혀지는 것을 극히 꺼려하는 특수한 정체성임을 감안했다. 심층인터뷰는 참여연구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극소화시키며 최대한 편한 대화가 가능한 조건과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를 위해 한 참여연구자의 집에서 그녀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두 명(사전에 인터뷰 참여 의사를 밝힌)을 초대하여 시간 차이를 두고 심층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세 여성들은 각기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과의 심층면접에서 이야기하는 방식, 태도 등을 관찰하면서 면접내용을 녹음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면접을 통해 나눈 내용 전문을 녹취록으로

<표 1> 연구 참여자의 배경

이름	연령	탈북 /입국연도	출신지역	성 서비스영역 /역할	참여 기간	활동지 역	면접 회수
김필순	40대 후반	2008/2015	함경북도	단란주점/ 주인	2016~2017	제주	3회
이가희	30대 초반	2006/2008	강원도	노래방, 에인대행/ 도우미	2010~2013	서울	4회
홍경숙	50대 후반	2007/2008	양강도	티켓다방/ 주방	2008	경기도	2회
김지나	40대 초반	2012/2015	양강도	티켓다방/ 성판매자, 주인	2015~2017	경북/ 충북	1회
최신혜	40대 중반	2005/2015	함경북도	티켓다방/ 주방	2016	전남	1회
김동희	30대 후반	2009/2012	함경북도	와싱, 스포츠 마사지/ 마사지사	2015~2017	서울	3회

작성하였고, 내용을 주제별로 범주화했다. 연구자와 구술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산되며 연구자에 의해 재해석되는 과정<sup>10)</sup>을 통해 구술자가 경험한 생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배치로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북한을 떠난 이유, 중국에서 생존 경험과 한국 사회에서 성 서비스영역의 참여까지 연결시켜 이들의 삶을 두껍게 읽고 해석하여 참여자의 사회·문화적 위치를 파악했다.

10) 윤택립,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서울: 아르케, 2004), 99쪽.

### 3. ‘고난의 행군’과 경계 넘기

#### 1) 첫 번째 사선 넘기, 북한 땅에서 중국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약 5년간 북한 사회에 불어닥친 ‘고난의 행군’은 북한주민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킨 사회적 사건이었다. 특히 이 시기를 통해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변화하게 되었는데 남성들은 배급을 받지 못해도 일터에 나가야 하는 사회체제 속에서 가족의 생존을 책임지게 된 것은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고난의 행군’ 기간에 배급이 중단되고 기근이 지속되자 먹을거리를 구하려는 북한 사람들의 국경을 넘는 현상이 잦아졌다. 식량난이 가중됨에 따라 기아로 인한 아사자가 발생하고 폭력, 절도, 인신매매, 유기, 살해 등의 극단적 범죄뿐 아니라, 가정과 가족이 붕괴되는 현상이 확산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상처받은 사회’의 모습을 보였다.<sup>11)</sup> ‘고난의 행군’은 주민으로 하여금 기아와 가족해체를 불러 온 혹독한 시련의 기간이었다. 식량배급 제도가 붕괴한 상황에서 대규모의 아사자가 발생하지 않고 자생적 경제활동이 나타난 것은 가족의 이익을 극대화해 온 가족전략이 여성을 중심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이다.<sup>12)</sup> 북한 여성들은 가족의 생존을 책임지기 위해 경제활동에 뛰어들었고, 북한의 전 지역으로 장사를 다녔을 뿐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은 중국을 건너다니는 월경

---

11) 이 시기에 가난한 북한가족들은 가족 해체와 이동을 겪었고 여성 인신매매 문제와 영아 살해, 버려지는 아동 등이 발생되어 전반적으로 취약계층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임순희, 『북한 여성의 삶: 지속과 변화』(서울: 해남, 2006), 73~74쪽.

12) 박현선, “경제난 이후 북한 가족의 사회연결망 강화전략,” 『한국문화연구』, 2권 (2002), 143쪽.

(越境)을 수행했다. ‘고난의 행군’을 통해 중국을 건너간 북한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와 북한이탈주민이 된 것이다.

어려운 시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국가의 근간을 이루던 통제 시스템도 무너졌다. 국가가 금지해 온 ‘사경제 활동’<sup>13)</sup>이 형성되면서 여성들의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활동은 밀수, 국경 넘기, 탈북 등 그 이전에 볼 수 없던 사회적 일탈 행위들이 일상화되었다. 북한주민들은 생존 전략으로 장마당에 모여들었고 이렇게 생겨난 농민시장이 성행하게 되어 아래로부터의 자생적 시장화가 전개되었다.<sup>14)</sup> 북한이 겪은 과정이 초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으나 인민들은 급격한 사회변동에서 새로운 생활세계를 구축하며 국가에 대한 집단주의의식보다는 개인이 우선이라는 인식 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한 주민 중에는 탈북을 하는 경우 중국으로 건너와 숨어 경제생활을 영위하거나 밀수 등으로 자본을 마련해서 북한으로 돌아가거나 한국이나 제3국으로 떠나는 여러 가지 경로를 선택한다. 다수의 탈북여성들은 북중 접경에 사는 조선족 친척집을 방문하거나, 밀수를 위해 혹은 중국에 가 있는 가족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등의 이유로 조중 접경의 월경(越境)을 하면서 공간경험을 넓힌다. 중국에서 중국인

---

13) 사경제 활동의 결과는 계급에 따라 층별화로 진행되었는데 상층계급의 활동이 이윤극대형의 유형이면 중하층은 생존을 위한 생계유지 방식으로 심화되었다. 간부직 가정과 같은 상층은 경제난에도 식량배급이 지속되고 이윤을 남기는 장사를 할 수 있어 경제난 이후 삶이 더욱 윤택해졌다. 그러나 일반노동자 가족들은 배급이 중단되었고 굶주림과 아사자를 경험하여 경제난 이후 식량 마련을 위해 장마당에서 장사에 매진하게 되었다. 이미경, “경제난 이후 북한여성의 삶과 의식변화와 함께: 탈북여성과의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엮음, 『북한의 가족과 여성』(서울: 경인문화사, 2006), 382~389쪽.

14) 최봉대·구갑우, “북한도시 ‘장마당’ 활성화의 동학,” 최완규 엮음, 『북한도시의 위기와 변화』(파주: 한울, 2006), 114쪽.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도 공안에게 적발되어 복송되거나(김지나, 최신혜), 호구조사 등으로 생존이 어려워지면 남한행을 계획하게 된다는 것이다(김필순, 홍경숙, 김지나, 최신혜와의 인터뷰 중). 이들에게 경계 넘기는 중국으로 건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안으로부터 적발되지 않기 위한 은신의 삶이 지속된다. 월경 과정에서는 이미 브로커와 접선지역을 정해 놓고 한밤중에 강 건너 일정한 장소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하는 곳으로 데려다준다는 약속과 다르게 인신매매를 당한다고 경험자들은 말한다.

홍경숙(50대 후반)은 함경북도 출신으로 1980년대 초에 평양 남성과 결혼한 후 평양에서 인민학교 교사를 하면서 살았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이 불어닥치면서 배급이 멈추어 버린 교사직을 그만두고 언니와 장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혼을 했다. 아들은 함흥에 있는 친정식구들에게 맡기고 각 도시로 돌아다녔다. 둘째 언니와 시작한 ‘되거리장사’<sup>15)</sup>의 밑천은 일본에 있는 맏언니가 보내 주는 돈으로 시작했다. 일본의 언니가 보내 준 돈은 북에 사는 가족들이 식량난에도 굶어 죽지 않게 해 주었고 가족들이 장사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가 탈북한 이유는 일본 언니가 보낸 돈을 브로커(broker)가 부당하게 착복한 사건으로 인해 중국으로 그를 찾으러 가야 할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었다. 북한의 사회 구조상 해외에서 가족들에게 직접 송금이 안 되므로 중국의 조선족 브로커를 통해야만 받을 수 있었고 약조한 비는 가족 7: 브로커 3의 분배였다. 언니는 2005년에 1000달러를 보내 주었고 가족에게 보내 주기로 한 액수의 돈만큼 전달되었다. 약정한 대로 언니의 돈을 받던 중 2007년에는 송금액 3000달러 중 전달된 것은

---

15) 물건을 직접 사서 곧바로 넘겨 파는 장사를 의미한다.

5백 달러뿐인 사건이 생겼다. 홍경숙과 언니는 폐인 돈을 회수하기로 계획하고 새로운 중개인 라인과 접선했다. 조선족 새 브로커는 전 브로커 집으로 함께 갈 것을 제안하면서 책임지고 돈을 찾아 줄 수 있다고 하여 회수 성공 시에 6 : 4로 나누기로 했다. 그러나 언니와 둘이 건너가기에는 노출 위험이 크므로 언니는 무산에서 기다리고 그녀 혼자 다녀오기로 했다. 그녀는 돈을 찾아 돌아오는 데까지 전 과정이 일주일이면 족히 해결될 줄 알았다. 그러나 막상 가서 보니 전 브로커는 오간 데 없고 동네 사람들을 통해 상해 어디로 갔다는 소문만 알게 되었다. 새 브로커는 이튿날 북으로 가기 위해 하룻밤 자야 한다며 그녀를 농촌의 한 농가로 데려갔는데 그녀는 자신이 팔아넘겨진 것을 바로 알게 되었다. 그녀는 한족 남성의 가족들로부터 감시를 당하면서 일꾼 겸 아내로 살다가 두 달 후 도망을 쳐서 중국의 어느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였다. 중국에서 호구(주민등록) 없이 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 하는 경우는 노출이 잘 안 되므로 일정 기간 동안 안전하게 머물 수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탈북인들을 한국으로 데려가 준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렇게 만난 선교사는 브로커를 연결시켜 주었다. 브로커를 만나러 가는 경로는 혼자서 베트남 국경까지 가야 했으므로 버스 노선을 묻는 중국어 메모를 준비해 사람들에게 보이며 두려운 경계 넘기를 감행했다.

이가희(30대 초반)의 아버지는 자동차와 배 수리, 전기설치 등을 하는 기술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손재주가 좋아 재봉질을 하였다. 그녀에는 소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고난의 행군’을 경험했다. 따라서 7, 8살까지의 기억은 배고픔보다는 어떻게 하면 집에 더 좋은 것을 해 놓고 살까 이야기하던 부모와의 평범한 일상이었다. 아버지는 가부장적 성격으로 기업소에서 돌아와 집안이 잘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가족 모두

를 야단쳤다. 그녀는 인민학교 입학부터 시절 ‘고난의 행군’을 경험했다. 그녀가 살던 지역은 ‘고난의 행군’이 다른 곳보다 1, 2년 늦게 진행되어 식량난을 1997년부터 체감하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손재주가 있어 식량난 초기에 옷을 만들어 먹고 살았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세 손가락이 잘려 돌아왔다. 그 이후 아버지는 엄마에게 다른 집 여자들처럼 돈을 벌어 오지 않는다고 매질을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는 사람들과 장사를 하러 돌아다니면서 몇 달씩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날이 갈수록 학급 친구들의 결석이 잦아졌고 동네 이웃집에 어머니들은 거의 없었다. 어머니들은 장사를 하러 모두 어디론가 나가서 동네에는 아이들뿐이었다. 때때로 엄마는 자신이나 동생을 데리고 장삿길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9살 때 엄마를 따라갔다가 사람 많은 기차에서 깔려 다친 사건이 발생한 후 다시는 먼 장삿길에 자기와 동생을 데려가지 않았다. 대신 집에서 밥과 빨래 같은 집안 살림살이가 그녀의 몫이 되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술에 취하면 어린 자신에게도 돈 벌어 오라고 호통을 쳤다. 그녀는 12살 여름 무렵에 혼자서 평안남도 회창 금광 부근의 인력시장으로 갔다. 그곳 금광에서 어린이를 고용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새벽 버스를 타고 회창 장마당에 가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섰다. 말로 듣던 대로 돈주<sup>16)</sup>라는 사람들이 와서 금광에서 일할 어린이 몇 명씩을 데려갔다. 자신도 어떤 돈주 아저씨에 의해 뽑혀 채굴장으로 갔다. 그곳은 과거 일본 사람들이 개발한 곳으로 굴이 워낙 좁아 체구가 작은 어린이들을 이용하여 주워 나오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일

---

16) 북한 사회의 신흥 자본가를 의미한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새벽에 돌아와야 했다. 그것은 자신을 집으로 데려간 아저씨가 한방에서 아내도 함께 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자리에서 자신에게 성폭행을 시도해서 무서워 도망나왔기 때문이다. ‘고난의 행군’은 배고픔뿐 아니라 일상에서 두렵고 지난한 시간들로 지속되었다. 엄마들이 없는 동네에서 어린이들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본인도 이웃의 아저씨로부터 성폭력의 위협을 피하면서 긴장을 해야 했다. 집에서는 집안일을 도맡아야 하고 아버지에게 매를 맞기 일쑤이며 이웃으로부터 성폭력 위협이 있어 되도록 장삿길에 나서는 엄마를 따라다녔다.

김지나(40대 초반)는 탈북하기 전까지 북한에서는 일반 기업소에서 사무 일을 보던 평범한 여성이었다.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고 아들을 낳았지만 ‘고난의 행군’ 때 이혼을 했고 장마당에서 장사를 했다. 이종사촌 여동생이 탈북하여 한국으로 간 후 한국이 살기 좋다는 이야기를 해 왔다. 그녀가 중국으로 밀수하러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감시가 붙기 시작하자 신변의 불안감을 느꼈다. 남한이 북한의 삶보다 더 나은 것으로 기대하여 어린 아들을 추후 데려갈 계획으로 혼자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녀는 제3국까지 안전하게 이동시켜 줄 브로커를 찾아 2012년 조중 접경을 건넜다. 그 브로커는 연변 근처 농촌의 어느 집으로 데려다 놓고 며칠 후 올 거라며 떠났으나 이후 돌아오지 않았다. 그 집에는 노인 둘과 나이 든 남성이 있었다. 그녀는 그 남자의 신부로 팔려 왔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지만 중국말도 모르고 빠져 나갈 방법이 없었으므로 3년간 그 남성의 아내로 살면서 딸 하나를 낳았다. 어느 날 공안들이 집으로 호구 조사를 와서 단속에 걸렸을 때 남편은 벌금을 내면서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막아 주었다. 그러나 이미 탈북인이라는 신분이 알려져 버렸으므로 더 이상 그곳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그녀는 한국의 사촌 여동생과 계속 연락하면서 중국 남편에게 한국으로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한국에 가면 남편도 일자리도 얻을 수 있어 중국에서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지만 강하게 반대하였다. 그녀는 남편 몰래 브로커와 연결해 도망치다시피 했고 한국에 온 후에는 중국 남편을 설득해 중국의 딸과 북한의 아들 모두 한국으로 데려왔다.

밀수를 업으로 하는 북한사람들은 조직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때로는 국경경비대에 근무하는 초소경비대원들과 친밀성을 담보로 하는 의례적인 관계들을 이용한다. 그러나 대부분 가난한 탈북여성들은 중국접경에서 일거리를 찾기 위해 월경한다. 이 과정에서 인신매매를 당하게 되는 위험을 알면서도 북한에서 살아갈 환경이 너무 어려우므로 인신매매의 위험상황을 감내하고 있었다. 인신매매를 당해 중국 남성의 아내로 살아가는 여성들은 이미 북한에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조중 접경 지역은 장백현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이 산촌과 농촌이므로 여성이 귀한 농촌, 산촌의 현실은 탈북여성들을 중국인의 신붓감으로 매매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 2) 두 번째 사선 넘기, 중국 땅에서 한국으로

최신혜(40대 중반)의 경우 결혼한 지 4년 만에 ‘고난의 행군’을 경험하고 몸이 아프고 살기 어려워 남편과 헤어졌는데 당시 시댁에서 아들을 데려 갔다. 그녀는 혼자 살아가다 보니 곤궁함을 해결하기 어려워 동네 아줌마들처럼 중국으로 건너가 일을 구하고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2005년에 동네사람이 연결해 준 브로커를 따라 두만강을 건넜다. 그러나 접경지역에서 만나 일을 할 수 있는 집이라며 데려다준 곳은

연변의 농촌이었다. 한족 남성에게 팔려 간 것을 알고 기분은 나빴지만 첫날부터 대접은 괜찮았다. 그녀는 한족 남성의 아내로 2년 차에 아들을 낳았고 10년간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자신이 탈북인이므로 그 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식으로 호구를 올려야 했다. 그녀는 주변의 조선족이나 탈북여성들을 통해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탈북인들을 모아 한국으로 데려다준다는 정보를 듣고 선교사들을 찾아다녔으나 만나지를 못해 포기하게 되었다. 그러다 2008년 자신이 북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찾아온 중국 공안들에게 붙잡혀 북송되었다. 북한의 단련소에서 나오자마자 중국 남편에게 돌아와 살았지만 그 이듬해 다시 공안 단속으로 북송되었다. 북송 과정에서 호되게 매를 맞았고 다리를 다쳤다. 이번에는 풀려나자마자 중국으로 돌아가 비싼 돈을 들여 가짜 호구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미 동네와 공안에서는 자신이 북한에서 온 여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남편도 아내가 한국으로 가서 한국 국민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한국으로 보내 주었다. 그녀는 비록 자신이 인신매매의 거래 대상이었으나 남편에게는 고마운 마음으로 10년간 살았고 현재까지 좋은 사이를 유지한다. 중국의 딸을 한국으로 데려왔고 아이는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리워해서 매일 영상통화를 한다. 그 남편은 가끔 농한기에 한국 방문을 하지만 이주하지 않은 이유는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서 장남인 자신이 노부모를 모셔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시대에 남겨 놓은 아들은 입대 후에는 소식이 닿지 않는다. 아들이 그림지만 소식 닿는 것을 꺼려 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중국인의 아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어렵고, 전 시택식구들이 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비록 그녀는 인신매매를 당했지만 남편 북이 있었다고 믿고 있고, 중국 남성들이 남북한 남자들보다 인간

적이고 책임감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김필순(40대 후반)의 북한에서 직업은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비뇨기 수술실 간호사였다. 그녀는 간호사 시절 스물두 살에 결혼을 했지만 남편은 가부장적인 사람으로 결혼생활은 불만족한 상태로 지속되었다. ‘고난의 행군’이 발생한 후에 남편은 기업소에 출근했지만 그곳에는 일거리가 없었다. 남편은 영양부족에다 병두(아편)를 시작했으며 출근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일을 나간 사이 동네 여성과 부화(바람)가 나기도 하고 점점 마약중독자가 되어 버렸다. 그녀는 결혼 6년 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곧바로 장마당에서 장사를 했는데 중국 물건과 담배 등을 팔았다. 그녀는 이는 사람들과 함께 중국으로 가서 북한 약초나 명태 등을 팔기도 하고 중국의 먹을거리를 사다가 북한에서 팔기도 했다. 이때 법관 부인이 함께 장사를 해서 북한국경 초소 경비원들은 담배와 같은 물건을 떼어 주는 것으로 통행을 눈감아 주었지만 들고 온 물건을 다 빼앗긴 일이 발생했다. 집으로 조사 오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더 이상 중국행 밀수는 어려워졌다. 그녀는 2008년에 중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는데 그녀가 간 곳은 연변 부근 노래방 도우미였다. 그곳의 젊은 탈북아가씨들을 찾아오는 중국 남성들이 주요 손님이었다. 그녀는 노래와 춤, 악기 연주에다 중국어를 잘해 어느 노래방을 가도 인기가 있어 수입도 많았다. 처음에는 노래방 주인이 마련해 준 숙소에서 북한에서 온 아가씨들이 함께 살았는데 나중에는 노래방 주인과 함께 살면서 탈북여성 관리자가 되었다. 그곳의 젊은 북한 여성들은 남한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모두 한국으로 떠나기 위해 브로커를 알아본다고 공공연히 말하였다. 그녀도 남한 사회를 동경하며 2015년에 고향 친구와 함께 한국행을 선택하였다. 브로커는 그곳의 아가씨들을 차례로 한국으로 데려다주었는데 비용은 그동안 일해서 번 돈으

로 충당했고 한국 입국을 위해 서로 연대 보증인이 되었다.

참여연구자들은 각각 다른 이유로 탈북하고 중국으로 건너갔으나 대부분 북중 접경에서 인신매매를 당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중 세 여성은 도망을 쳐서 나왔고 두 여성은 남편을 설득하여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왔다. 나머지 한 여성은 중국 사정과 중국어를 할 수 있었으므로 이동이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탈북여성들은 북한을 떠날 때도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 중국을 떠나 난민 수용소로 갈 때도 또 다른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중국을 떠나 다른 국가의 수용소로 가는 과정에서는 선불을 일부 냈고, 잔금은 한국에서 정착금에서 지불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있는 누군가가 보증을 서야 했다. 보증을 세우는 방식은 다양해져 브로커는 모두 다 함께 데려가지 않고 먼저 간 사람이 연대 보증을 서도록 했다. 때로는 보증서는 사람이 선교사이고 미리 한국에 입국한 가족이기도 했다. 한국에서 보증 설 사람이 없는 경우는 선금을 3분의 2 정도 내고 남은 돈은 첫 정착금에서 완불하기로 한 계약서에 지장을 찍었다. 북한 여성들의 중국으로의 월경과 한국으로 경계 넘기는 북중 접경 지역의 일부 조선족들에게 인신매매 네트워크사업의 대상이었다.

#### 4. 성 서비스 영역 진입과 가족 규범

##### 1) 남한유입 성공에 따른 채무

탈북여성들이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중국접경에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한국으로 진입을 결심하기까지는 잠잘 때조차 두려움이 수반

되는 경험을 거쳤다고 진술한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사선을 넘어 온 탈북여성들이 북한에서 경험한 적이 없고 노동에서 가장 천하게 여겨지는 성 서비스 영역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심리적 사선을 넘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자들은 성 서비스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러려고 내가 그 고생을 하면서 남한에 왔나?’ 하는 자괴한 질문이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혔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에 오면 정착금으로 브로커 비용과 한국에서의 생활 그리고 북한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세 가지가 다 해결될 줄 알았다. 남한 땅으로 성공적인 유입은 브로커와의 지불 약속 이행, 북한과 중국에 있는 가족과의 송금 약속을 지켜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연결되었다.

전반적으로 탈북여성들은 가족구성원의 불안정성과 함께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형을 나타낸다. 한국 사회에 정착한 탈북인에게 생기는 젠더 문제는 원거리 가족 관계 속에서 수행해야 하는 전통적인 가족규범도 한몫을 한다. 대북송금 조사결과에 의하면 58.5%가 북의 가족에게 송금한 경험이 있었다. 평균 송금액은 1백만 원에서 2백만 원 사이가 37.5%였으며 50만 원에서 1백만 원 송금이 27.9%를 차지한다. 이 금액은 일을 해서 번 돈의 61.8%를 차지하고 있다.<sup>17)</sup> 또한 탈북인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신체적 질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비경제 활동을 하는 탈북인의 44.8%는 질병 등 육체적 어려움으로 나타났 다.<sup>18)</sup> 이것은 노동시장에서의 지속적인 활동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는데 그 원인은 북한 사회에서 영양부족 상황에서의 출산, 육아 그리고 장기간의 탈북 과정에서 얻게 된 질병 등이다. 이들

---

17) 임순희·윤인진·양진아, 『2016 북한이탈주민경제사회통합실태』(북한인권정보센터, 2017), 131~147쪽.

18) 임순희·윤인진·양진아, 위의 책, 84~86쪽.

이 한국 사회에서 성 서비스 영역으로 진입하는 데는 위에 열거된 저임금 문제, 초기 정착금에서 브로커 비용 채무 문제, 북이나 중국에 남겨놓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개인적 의무 문제, 장기적 노동이 어려운 신체적 문제 등이 중첩적으로 작용한다. 초기 탈북인들은 처음에 한국에서 받은 정착금을 이런저런 이유로 탈북인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하나원에서는 정착금을 잘 사용하도록 주택보증금 빼고 분기별로 분할해 내도록 교육하고 있다. 또한 정착금을 일괄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4대보험이 되는 회사에 1년 근속자를 독려하는 지급이나 고용보험이 되는 일자리 수당을 주면서 직업교육을 연결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탈북여성의 취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요양사나 의류 리폼 등 전문 직종의 특화사업 등을 실행하고 있으나 훈련생들은 기간 이후 취업을 하게 되어도 직장근로 일 년을 채우기 어렵다고 한다. 직업 훈련 종료 후 노동영역에 배치되면 한국 사회의 센 노동 강도에 적응을 못해 신체적인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다.<sup>19)</sup> 게다가 노동 시장에서 열심히 일해도 낮은 임금은 이들이 처한 브로커 비용 채무와 가족에게 송금 의무 등 자신들이 가진 중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언론에서 밝혀진 탈북여성들의 성매매 이유는 한국에서 받은 정착금 대부분을 브로커에게 넘겨야 하고, 북한에 남은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다.<sup>20)</sup> 탈북인들이 대부분 안고 있는 개인적 문제는 한국 정착 후 지급해야 하는 브로커 비용과 북에 남은 가족에게 보내야 하는 대북 송금의 부담으로 개인들에겐 절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

19) 홍경숙, 김지나, 최신혜와의 인터뷰 중.

20) “성매매 탈북 여성 티켓다방 실태,” TV조선 뉴스판, 2017년 1월 26일.

북에 있는 가족을 남한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또 다른 브로커 비용이 필요하므로 가족을 데려오는 것은 빈곤의 악순환을 의미한다. 하나원에서 나오기 전 지급 대상 탈북인들에게 첫 정착금이 주어지는데 계좌 이체하는 방법도 가르쳐 준다.

홍경숙(50대 후반)의 경우 하나원에서 통장을 받자마자 브로커에게 지급을 약속한 금액 250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음 날 자신을 데려다 준 목사님을 통해서 북한의 가족이 돈을 보내 달라는 전갈을 받고 중국계좌로 36만 원을 보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정착에서 시작한 돈은 총 14만 원뿐이었다. 하나원 퇴소 후 한강 근처의 영구임대주택 아파트를 배정받았는데 관리사무소에 가서 입주비와 주방용품 몇 개를 사고 나니 당장 먹고 살 돈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남한에서는 누구나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이었다.

“총 14만 원 가지고 와서 관리소에 입주할 때 내는 8만 원 내고 열쇠랑, 칼, 도마, 소랭이(대야) 사니 돈 남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탈북인 거주 사실)하러는데 마을버스 탈 6백 원이 없어서 길도 모르면서 네 정류소 되는 경찰서를 물어보고 매일 걸어 다녔어요”(홍경숙, 50대 후반).

김지나(40대 초반)의 경우 한국으로 입국을 했지만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브로커 비용의 완불이었다. 중국에서 출발할 때 이미 한국에 정착한 사촌동생이 보증을 썼으므로 돈이 없다고 떼먹거나 미룰 수 없었다. 그녀는 정착금을 받자마자 완납하고 보니 생활할 최소한의 돈도 없어 어려움에 직면했고 사촌이나 동기들에게 당장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요청했다. 식당일은 너무 고되고 힘들어 오래 다닐 수 없었다.

그러나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 과제는 미룰 수 없었으므로 아픈 몸을 생각해 조금 더 쉽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았다.

“그래도 북한 가족에게는 돈을 보내야 해요. 난 맏딸인데 내가 나오느라 여동생이 내 아들도 키웠고 지금은 아픈 엄마를 모시고 있거든요”(김지나, 40대 초반).

이들이 경계를 넘어 온 한국 사회에서 정착금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 유입을 도와준 브로커 비용 지급이었다.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되는 이유였다. 따라서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했지만 이들이에게 주어진 일은 대부분 견뎌내기가 어려웠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 경험하지 않은 미숙련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 장기간의 영양 부족, 탈북과정과 수용소 생활로 몸과 마음이 허약해진 탈북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노동의 강도를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탈북인들의 가난이란 악순환이 재생산되는 것은 바로 브로커 비용 지급에서 출발하는 구조적인 문제였다.

## 2) 원거리 가족들에게 송금 의무

“북에(가족들에게) 돈을 보낼 수 있고 장사 밑천을 마련한다면 여기서 된 짓을 못 해, 맘 굳게 먹고 딱 일이 년만 하자였어요.” 성 서비스 영역으로 들어갈 때 김지나(40대 초반)의 각오였다. 그녀가 회사를 몇 번 옮기다 식당일을 그만둔 후 연락이 되어 간 곳은 북한에서 알았던 언니가 몇 해 전에 한국에 정착하여 일하는 경상북도의 시골 동네 티켓다방이었다. 그 업소에는 본인을 포함해서 7명 정도의 탈북여성들이

일하고 있었다. 그곳은 경상북도 도청이 설립되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이미 탈북여성들이 운영하는 티켓다방이 대여섯 개 만들어져 성매매 촌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주로 도청공사장 인부들인데 오랜 기간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었다. 언니로부터 이곳에서는 숙식비로 무조건 하루에 3만 원씩 임금과 업소 내에서 커피값은 주인의 몫이다. 그러다 보니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아가씨 몫의 돈이 된다. 일하는 언니들은 내게 손님들과 밥을 먹거나 노래방을 가도 시간당 3만 원씩이므로 선불을 받아야 한다고 귀뜸해 주었다. 성매매를 하지 않아도 시간당 3만 원씩 벌 수 있지만 단골을 만들려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성 서비스 영역은 남자들을 상대로 하면서 여성끼리 경쟁관계에 놓이지만 이곳 북한 여성들끼리는 손님을 서로 나누어 돈을 골고루 벌도록 한다. 모두 북한에 가족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티켓다방에서 일하는 아가씨 중에는 20대 초반부터 자신처럼 40대뿐 아니라 50대 여성도 한 사람 있었다. 연령에 따른 차등적 벌이는 어쩔 수 없으므로 나이를 속여야 했다. 또한 이름도 성부터 바꾸어서 사용했는데 한국 남성들은 아가씨들의 이름과 나이와 고향을 묻고는 성씨의 본은 어딘지, 띠는 무엇인지 늘 물어 보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자신이 누구인지 외워야 했다. 그곳의 50살 언니는 손님들에게 자신을 40대 후반이라고 말했고, 그녀도 자기 나이를 30대로 알렸다.

“돈을 좀 모으려면 북에서 전화 와서 보내면 또 돈이 없죠. 회사 다니면 그런 돈을 모을 수 없자나요. …… 나는 이 돈을 보내면서 동생에게 아껴 쓰라 말 못했어요. 말로 여동생이 부모를 모시니 뭐라 하지 않고 그냥 보내요”(김지나, 40대 초반).

김동희(30대 후반)는 2009년 이웃의 먼 친척이라며 놀러 온 조선족이 중국에서 일자리를 구해 준다는 말을 믿고 동생과 중국으로 갔으나 브로커에 의해 둘이 따로 인신매매를 당해 중국에서는 만나지 못하고 살았다. 그 동생은 먼저 도망쳐 한국에 왔고 김동희는 농촌 남자와 살다 이 년 만에 아이를 낳고 살다가 조선족으로부터 한국에서 탈북인들을 구하러 왔다는 선교 목사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브로커와 닿아 한국으로 도망 올 수 있었고 동생도 만났다. 중국에 있을 때는 한국에 가서 중국식 마사지를 하면서 벌어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한국에 오니 마사지는 중국보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다. 처음에는 풋샵(footshop)이라는 마사지 체인점에서 일을 했는데 그곳은 주로 조선족들이 많았다. 같이 살던 여동생이 한국에서 더 이상 살기 싫다고 외국으로 난민 신청을 한다며 떠났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 년 이상 난민 판정을 기다리고 있어 돈이 필요하다고 보내 달라고 하고 북에선 오빠가 부모님이 병환이라 돈을 보내 달라고 연락이 자주 온다. 그녀는 일반 마사지 가게에서의 벌이로는 가족들에게 보낼 돈은 고사하고 혼자 사는 것조차 어려워 상대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윤락형 스포츠 마사지를 선택했다.

“그래도 나는 내 가족을 살리고 있으니 천한 일을 그만둘 수 없어요. 이런 곳 말고 한 달에 몇백만 원을 버는 곳이 또 어디 있겠어요”(김동희 30대 후반).

참여연구자들의 한국 사회에서 성 서비스 영역으로 진입하게 된 배경은 경제적인 곤란에서 출발하였다. 이들이 처음으로 대면한 어려움은 바로 첫 정착금의 대부분을 브로커 비용으로 지불 후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정상적인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신체적·사회적 조건을 갖고 있는 탈북여성들에게 성 서비스 영역의 참여는 그것이 어떤 노동이건 절급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사다리였다.

“나는 사실 다리와 허리수술도 받아야 하는데 마을 버스비도 없어 걸어 다닌다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동기들에게 말했더니 양평의 다방을 하는 탈북여성 언니가 주방에서 일할사람 구한다고 연락이 왔어요”(홍경숙, 50대 후반).

이가희(30대 초반)의 경우 20살에 한국에 왔지만 한 해 먼저 온 엄마와 동생이 있었으므로 정착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가 탈북을 결심한 것은 ‘고난의 행군’ 이후 엄마가 중국으로 가 버린 후 그녀는 북한에서 살기보다는 엄마가 사는 중국으로 가서 일을 찾기로 했다. 2006년 북한을 떠날 때 아버지가 준 꼬깃꼬깃 한 쌈짓돈과 도시락을 받아 역에서 헤어진 게 마지막이었다. 그녀는 중국에서 엄마와 함께 바느질일을 하면서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러나 엄마는 한국으로 가길 원했고 본인은 미국의 난민이 되기를 희망했으나 수용소에서 폭력을 견디지 못해 한국행으로 마음을 돌렸다. 한국에 와서 먼저 온 엄마와 동생을 만나 셋이 함께 살았지만 엄마로부터 어떤 경제적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이가희는 엄마와 살 때부터 학비를 벌기 위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다 시도했다. 남한으로 내려온 세 가족은 북에서 그러했듯 다시 뿔뿔이 흩어졌다. 알바비로 저렴한 월세를 구했지만 등록금을 내고 나면 결국 월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을 까먹으며 지냈고, 먹는 것을 살 수 없어 굶는 날도 생겼다. 평소에 좋아하는 하나원 동기 언니와 가끔 전화로 연락을 하다가 어려운 사정을 말하자 시간당

3만 원 노래방 도우미를 해보려는 제안에 앞뒤 안 보고 승낙했다. 조건은 일하는 시간이 늦은 밤중에서부터 새벽까지이고 노래 부르고 술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 언니도 아이들이 있어 재워 놓고 야간에 돈벌이를 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학교에 다녀야 하므로 야간과 새벽 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본인의 여건상 가장 효율적인 돈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가서보니 노래방에 손님들이 오면 죽 늘어선 여성들을 선택해서 방으로 데려가는데 자신은 새벽 세 시까지 오늘 손님들이 아무도 선택해 주지 않아 마음이 급하고 당황했다. 다행히 탈북인 언니가 나와서 다른 손님이 오니 끼어들어 가자고 해서 언니가 있는 방에서 손님들이 요청하는 노래를 부르고 술시중을 들어 세 시간 비용을 챙길 수 있었다.

“북한에서 고생하고 또 한국에서도 배를 굶주려야 하는 게 기막혀 지금도 표현하기 어려워요. 이는 언니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했더니 너 노래 잘하니 노래방에서 일하면 되겠다”(이가희, 30대 초반).

김필순(40대 후반)은 하나원 교육 과정을 마친 후 바로 주택을 배급받지 못했으므로 관악구 임대아파트에 배정받은 동기 부부 집에서 2주를 머물다 발산역 근처의 아파트로 배정 받았다. 담당보호관은 그곳은 탈북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지만 이상하게도 탈북인들끼리는 서로 가까이 지내지 않는다고 알려주었다. 첫날 어느 단체에서 쌀과 중고 TV와 냉장고를 갖다 주었는데 단체 사람들이 온 것은 그날이 전부였다. 그녀는 매일같이 동기 친구들과 전화로 통화했지만 각자 직장을 구한 후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전화 통화도 점차 어려워졌다. 정착금을 받자마자 브로커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나서, 휴대폰 요금,

공과금, 생활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돈이 얼마 되지 않아 걱정이 되었다. 마침 동기 언니가 영등포 역전 부근 식당 주방 사람을 구한다고 소개를 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아침에 가면 밤 11시에 끝이 나는 힘든 일이었다. 무릎이 안 좋은 상황에서 무거운 그릇들을 옮기고 쪼그려 앉아서 일하다 보니 다리가 통통 부어 일주일 만에 그만두었다. 그러다 조금 수월한 곳이라고 소개받으면 식당 일을 해 보았지만 서 있기도 힘들었다. 가끔 설문과 인터뷰를 하라고 하면 용돈을 받았지만 그런 건은 일 년에 너댓 차례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남들에 비해 다행스러운 것은 북에 송금할 곳은 친절뿐이고 보채지 않아 내 여유가 생기면 보내면 된다는 것이다. 굶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 옷 하나 사 입기조차 힘들었다. 남한 사회에서 억척스럽게 성공해서 부자가 된 탈북인들도 있다지만 자신은 식당일조차도 어려워하니 남한 사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가 걱정이 들었다. 사람들이 남한에는 의료가 발달해서 남한 사회에서 노후 준비는 필수라고 했다. 북한에서 했던 기기수(수술실 간호원) 경력이 한국에서는 소용이 없었고, 무거운 것조차 들 수 없는 자신의 체력과 신체 상태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의 엄두를 낼 수 없었다. 그 대신 이곳에서 한국 남자가 아닌 외국 사람에게 시집가는 것이 북에서부터 지속된 자신의 힘든 운명으로부터 탈출할 최선의 방법이라 여겼다. 그러다 하게 된 노래방의 일은 어렵지 않았고, 외로운 처지에 여러 남성들을 만나는 것은 결혼을 위한 전략으로 여겨졌다.

최신혜(40대 중반)는 중국에서 10년간 살며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한국에서 몇 달 살다 보니 금방 바닥이 났다. 한국에 오자마자 일주일 정도 식당에서 일했다가 몇 달간 다리 통증으로 고생해서 돈 벌기를 포기하다 보니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다. 자신의 사정을 알게

된 탈북인 언니가 완도에서 직접 경영하는 티켓다방의 주방 일을 하면 180만 원을 주겠노라 제안하여 그녀는 바로 완도로 내려갔다. 티켓다방이라는 곳이 손가락질 받는 곳이라고 들었지만 주방 일은 상관없다고 여겼다. 몸이 아파 식당과 같은 곳에서 돈벌이가 어려운 자신의 신체적 여건상 다른 선택이 없으며 탈북여성들끼리 일한다는 것도 안심이 되었다. 그 다방에는 7, 8명의 젊고 예쁜 탈북여성들이 있었다. 그녀의 일은 주방에서 커피와 차를 끓이는 것뿐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와 청소를 하는 것이었다. 그곳엔 손님들이 많았지만 여성들은 오래 일하지 않고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 들어오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아가씨로 일하는 여성이 많을 때는 열 명에서 여섯 명까지 줄기도 했다. 사장 언니는 이곳에 탈북여성들이 많을수록 수입이 많아지니 동기들에게 전화해서 올 것을 요청했다. 하나원 동기들 중에 나이 어린 친구 세 명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들은 모두 승낙하고 합류했다. 그녀는 남성을 상대로 서비스는 하지 않아도 되는 역할이었지만 비뿔 댄 노래방에 가야 했고, 술 배달을 하며 팁을 받았으므로 그 영역은 사실 모호했다. 그녀는 주방일과 아가씨들의 옷 빨래도 해 주고 가끔 노래방에 가서 같이 노래하고 술 배달도 한 것이다. 그러나 처음 약속과 달리 월급은 지급되지 않았다. 그녀는 티켓다방에서 일하면서 성병에 걸린 어리고 예쁜 탈북애들을 볼 땐 “이러려고 목숨 걸고 여길 왔다” 하며 후회의 눈물도 흘렸다.

“언니(티켓다방 사장)가 아가씨 모집을 부탁해서 내 하나원 동기들에게 전화했더니 신기하게도 애들이 다 내려 왔어요. 그곳이 바닷가라 선원들이 많이 오고 아가씨들의 벌이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최신혜, 40대 중반).

성 서비스 영역에 참여한 여성들은 모두 북한에서 성을 매개로 한 직업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또한 이들 중 북한 땅을 벗어나 중국으로 건너갈 때 한국행을 계획한 사람은 단 한 명(김지나)뿐이었다. 첫 정착금을 브로커에게 지급한 여성들은(홍경숙, 최신혜, 김지나, 김동희) 생활이 너무도 어려웠다. 이들은 모두 자신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하나 원 동기들과 공유하였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들이 알선해 주는 성 서비스 영역의 일탈노동시장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조중 점경, 제3국에서 한국이라는 물리적 사선을 넘어와서 금기 영역인 일탈노동의 참여로 심리적 사선을 넘은 것이다. 성 서비스 영역이 연령대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이 나타난다. 50대 경우는 전면적 성 서비스 대신 ‘일 영역’ 안에서 주방일이나 기타 돌봄의 역할을 맡았다. 40대 여성들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각종 축제를 활용한 티켓다방에 참여했다. 30대는 활동 시점이 20대에 성 서비스 영역에서 시작을 하여 애인대행이나 마사지 등으로 수도권에서 활동했다.

## 5. 성 서비스에서의 경합과 생존 전략

### 1) 사회적·심리적 경합들

성 서비스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은 이 일이 자신에게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외부시선이 주는 부담감과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 등이 경합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단골을 만들어야 하면서도 손님을 독점하지 않고 골고루 돈을 벌도록 손님을 공유하는 내부 규범 지키기, 성병에 걸릴까 봐 위생을 신경 써야 하는 두려움 등은 일상적

경합이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일상적으로 갈등과 긴장을 수반했다. 한편으로는 낮은 자존감이 괴로운 현실에서 자기 합리화 같은 이중적 마음이 길항작용을 하며 나타나고 있었다. 이 ‘일’에 참여한 이들의 생존주의적 전략은 탈북여성임을 강조하거나 혹은 조선족으로 정체성을 숨기는 등 나름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또한 40대를 넘긴 여성들은 젊은 여성들에게 밀리는 현실에서 나이를 숨겨야 했다. 또한 신분이 드러날까 봐 이름을 바꾸는 것이 일상화된 성 서비스 영역에서 자기가 설정한 나이, 띠, 성씨의 본관 등 자신이 누군지를 외워야 하는 일들도 수반되어야 했다.

김동희(30대 후반)는 북한에서 부모를 모시는 남동생, 중국의 아이, 해외에 있는 동생에게 돈을 보내 주어야 하는 절급함으로 인해 다른 노동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윤락형 스포츠 마사지<sup>21)</sup>를 선택했다. 손님 낸 돈을 주인과 서비스 자가 5 : 5로 나누며 이곳에서는 콘돔 사용을 원칙으로 하므로 그녀에게 이 직업은 다른 성매매보다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여겨졌다. 생리 중 며칠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 몇 번이고 그만두고 싶었지만 가족들 생각하면 놀 수가 없어 다음 날 다시 나가게 된 것이 일 년을 넘겼다. 그러던 중 스포츠 마사지에서 함께 일했던 조선족 언니가 왁싱(waxing)가게를 차렸다고 함께 하자는 연락이 와서 직업을 바꾸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하루에 네 명 이상 상대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져 업종을 바꾸고 싶던 차였다. 새로 시작한 일은 스포츠 마사지보다 훨씬 몸이 편하고 돈벌이는

---

21) 윤락형 마사지의 가격은 대략 한 시간당 십만 원이다. 과정은 오일 마사지를 해 주고 난 후 샤워실에서 씻겨 주며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코스이다. 한 시간이 다 되면 밖에서 안으로 벨을 눌러 신호를 보내는데 한 시간을 더 추가하면 십만 원이 추가된다(김동희 인터뷰 중).

비슷하다. 이곳의 주된 업은 브라질리안 왁싱(brazilian waxing)<sup>22)</sup>으로 TV에서 소개된 후로 손님들이 늘고 있는데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단골로 온다. 이곳의 금액은 여성 7만 원, 남성은 10만 원으로 성별에 따라 정해져 있다. 남성 고객들은 성기 주변의 털 정리뿐 아니라 특별 서비스를 원하는데 그때는 돈이 추가된다. 그녀는 이 방식의 돈벌이가 성매매보다 안전하고 돈벌이도 좋다고 판단했다. 때로는 손님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역겨운 경험을 해도 원거리 가족들에게 보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그녀는 이 업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녀 나이 40살 이전에 장사 밑천을 마련하여 개인 사업을 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번번이 세 군데로 돈을 보내고 통장에 남는 게 없을 때 허무하고 외롭고 괴로웠다. 너무 괴로울 땐 술을 마시고 죽음을 생각하기도 했다. 죽음을 각오하고 건너온 곳에서 일이 아니면 무엇으로 가족을 살릴 것인가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자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릴 수 없다고 마음을 다스리곤 한다.

“탈북인들끼리 사기도 치고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하면서 제 나라를 팔자나요. 내 가족을 위해서 이깟 몸을 파는 게 뭐 나쁜가요”(김동희, 30대 후반).

전반적으로 이들이 참여한 업종의 특징은 사창가나 집창촌을 이루는 전형적인 성매매 형식과 다르게 업소가 법적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티켓다방, 노래방 등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또한 각종 지역사회 축제장, 대규모 공사장, 항구, 농촌의 오일장 부근 등에서 성업하고 있었다.

---

22) 일명 비키니 라인(bikiini line) 만들기로 통용된다.

서울에서는 유사 성행위를 내건 자유 업종으로서 성 상품화 시장인 노래방, 인터넷 애인대행, 스포츠 마사지 등의 유형을 보였으며 이들이 탈북인이라는 정체성은 드러내지 않았다. 그에 반해 지역사회에서는 탈북여성의 정체성을 앞장세워 전략화하는 티켓다방을 중심으로 성행하며 기존 성매매 고용주와 성 관매자와의 관계로부터 차별 점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일반 성매매의 시장에서와 달리 여성들을 관리하는 포주와 보호해 주는 남성들이 없으며, 고용주에게 하루 3만 원을 입금하는 계약으로 ‘빚’이 없는 비교적 자유로운 형태를 띤다. 또한 자신의 나이, 이름, 고향 등 개인정보는 감추면서도 탈북인이란 정체성은 강조하였다. 하지만 성 구매 남성들을 고객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혹은 근처의 동종 업종에서 일하는 중국 여성 혹은 조선족들과도 갈등이 생겨나고 있었다.

## 2) 자가지지와 생존전략

이가희(30대 초반)는 애인대행이라는 성매매 사이트에서 돈벌이를 시작했다. 한국에 와서 바로 대학 입학은 했으나 장학금이나 기타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녀는 월세와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턱없이 부족해 때로는 굶다 보니 자구책이 필요했다. 그러다 발견한 인터넷의 애인대행은 채팅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 처음에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서워 쪽지만 주고받다 보니 꽤 많은 돈이 쌓였다. 그 돈으로 월세를 내고 쌀을 샀고 용돈을 쓸 수 있었다. 채팅을 하다 보니 마음에 여유도 생겨 만남에 응했다. 애인대행에서 만남은 시간당 만 오천 원인데 밥 먹고, 영화 보고 차 마시는 시간까지 계산하면서 8, 9만 원가량을 만난 남성이 자신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그녀는

경제적인 도움뿐 아니라 외로운 남한생활에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이 나쁘지 않았으므로 지속하였다. 애인대행에서 만난 남성들 중에는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고 약속된 데이트 코스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녀는 다양한 직종의 남성들 중에 소위 지식인들, 전문인들이라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자신이 탈북인이라는 정체성을 밝혀 왔으므로 성관계 대상보다는 신기한 이야기 친구로 이어졌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일’ 과정에는 자신의 외모를 무시하거나 한밤중에 먼 곳으로 운전해서 가서는 돈을 안 주고 내려놓고 가 버리는 황당한 경험도 있었고, 자신의 처지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남성을 만나기도 했다. 자신을 공개하겠다고 한 남성의 협박이 두려워 몇 달간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며 돈을 빼앗기고 성폭력도 당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어려운 상황을 도와준 사람은 애인대행에서 만난 남성이었고 지금까지 좋은 친구로 지낸다. 애인대행의 ‘일’을 나갈 때는 피해가 두려워 가장 친한 친구에게 그날 만날 남성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고 혹시나 모를 뒷일을 부탁하기도 했다.

“(애인대행에서) 나름대로 2차 피해가 두려워 친한 친구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쓰고, 돈 벌러 나갈 때는 친구에게 오늘 만나는 사람,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연락이 끊기면 경찰에 신고를 부탁하기도 했어요”(이가희, 30대 초반).

김필순(40대 후반)은 2015년 한국에 정착했다. 첫해에는 서울 강서구의 노래방과 가라오케에서 일했다. 이는 탈북인이 제주에서 유흥업소를 경영하는데 그 업소에 중국인 관광객을 주 대상으로 하여 연주와 노래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여 내려오게 되었다. 그녀는 중국에 거주

할 때 노래방에서 일했고 그곳에서 탈북여성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익숙한 일이었다. 제주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넘쳐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소들이 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제주에 정착하자마자 중국 연변에서 있을 때 함께 노래방에서 일했던 젊은 여성을 불러 들였다. 탈북여성 다섯이 모였고 윤락의 주 대상은 관광 온 중국인들이다. 그녀는 일 년 만에 업소를 인수해서 주인이 되었는데 자금을 대어 준 것은 단골손님인 나이 든 한국남성이었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 간에 사드(THAAD) 갈등으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자 사업을 그만두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스폰서를 해 준 남성과 혼인을 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자신이 성 서비스 업종에서 일한 것이 가족들에게 알려질까 봐 염려하는 상태였다.<sup>23)</sup>

연구 참여자들은 성 서비스 영역에 진입하는 시기가 대부분 한국 유입 일 년 안에 이루어졌다. 이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하나원 교육을 통해 제공받은 공적정보나 탈북민 상담사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 하나원 동기들이나 미리 정착한 지인들에게 상의하고 단기간에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 사회의 공적 체제를 불신하기보다는 남한 사회의 문화된 서비스 체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탈북인끼리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은 탈북과 한국 입국 등 절박한 상황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국까지 들어온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이자 생존방식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교육이나 참여활동을 하고 연결망을 통해서 타인의 문제 해결방식을 학습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자신이 처한 문제를 의논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적응기간 연수가

---

23) 그녀는 당뇨병 합병증 환자인 한국인 남편의 간병을 하고 있으나 남편의 이들과 재산권 문제로 갈등하고 있었다.

일정 기간 지나야 가능할 것이다. 이들 중에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 탈북인 자조상담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직업을 구해 주는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여기거나, 상담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해 공연한 시간낭비라고 여겼다. 정착 초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조력자들이 같은 처지의 탈북인인 것은 어려움에 처한 일상을 이해해 주는 동병상련의 탈북인들이 문제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노동의 가치와 지속성 등을 고려하기보다는 쉽게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일탈노동을 탈북인들 간의 정보를 통해 쉽게 선택하고 있었다. 또한 성 서비스 영역 진입에 있어 나타난 특징은 하나일 동기 네트워크가 주요한 경로였다. 참여자들의 이동 경로뿐 아니라 자신이 있는 곳으로 사람을 모을 때도 동기생 젊은 여성들에게 자신이 있는 업소에서 같이 일할 것을 제안하고 수용하고 있었다. 나이든 여성들에게도 그 직종 내에서 연령에 맞는 일을 제안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탈북여성들이 접촉하는 공식적 이동의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며 반대로 유흥업소나 성 서비스 영역으로 진입은 매우 쉬운 연결망을 가지고 있다. 성 서비스에 참여한 여성들은 연령에 따라 ‘일’에서 역할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30대 여성들은 마사지와 애인대행으로 일과 주거를 서울에서 하며 자신의 ‘일’ 건수에 따라 돈을 벌고 있다. 40대 초반의 여성들은 지역의 티켓다방으로 옮겨 고객을 유치하며 다방주인에게 하루 3만 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에 반해 40대 후반의 여성들은 성 서비스 영역에 활동하는 이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업소주인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역시 성매매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일을 하기는 어려웠고 현장에서 인력이 모자랄 때 아가씨 대신 충원되는 역할을 수행했다.

전반적으로 이들의 성 서비스 영역으로 진입은 빈곤과 주변성에서 출발하고 있어 진입 맥락은 비슷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해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성 서비스 영역에 참여하지만 돈을 벌고 다시 사회로 재진입하는 데는 서로 다른 생존주의적인 전략이 나타나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일’에서 출구 전략은 각자 달랐다.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만 해결되면 이일을 그만두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례(홍숙경, 김필순, 최신혜), 북의 가족을 위해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사례(김동희, 김지나),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다시 어려움에 처하면 어쩌면 재진입할지도 모른다는 사례(이가희)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참여여성들은 주변으로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당위성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수치심을 축소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가족 속에서 여성으로서 당연한 희생이라고 인식하거나 생존이 어려운 남한에서 가난한 탈북인들끼리 사기를 치는 것보다는 성매매가 상대적으로 더 윤리적이란 가치판단으로 자신의 성 서비스 활동을 정당화했다.

## 6. 나가며

분단체제가 지속되어오면서 탈북인이 유입되는 현실은 한국 사회의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그중에서도 여성들의 주류화는 북한 사회의 장기간에 걸친 경제난과 식량난에서 여성들이 가족의 생존을 책임지는 가족규범의 증표로 가시화된다. 이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은 국가 간 경계를 뛰어넘어 한국에 왔고 정착하자마자 자신을 데려다 준 브로커들에게 약속한 비용을 지급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했다. 이들은

정착 초기에 북의 가족들에게 송금 의무를 해결하고자 성 서비스 영역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에서 성 매매에 관한 인식이나 경험이 없던 이들이 성 서비스 영역에 참여할 때는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목표에서 출발하고 있었다. 이들은 물리적 경계를 넘어 한국에 왔으며, 집안을 책임질 딸로서, 아이의 엄마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규범적 경계 또한 넘었다. 북한이나 중국에 남은 원거리 가족들의 기대가 있는 경우 자신의 노동을 통해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임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탈북여성들의 경제적 어려움에는 절대적 빈곤뿐 아니라 가족을 위해 희생하려는 규범화된 가부장문화가 결합되어 있었다. 이들은 목숨 건 탈북과정에서 인신매매와 도주, 탈중국의 사선을 넘는 경험과 한국 사회에서 금기 영역인 성 서비스 활동은 자신의 몸 하나에 모든 것을 건 생존 방식 그 자체였다. 참여자들은 일상에서 우선순위를 매김에 있어 그 보람과 의미는 가족을 위한 희생적 실천이었다. 따라서 스스로를 지탱하는 정서적 지지는 ‘심청이’적인 정서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탈북여성들이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 해도 심리적으로 터부시되는 성 서비스 영역으로의 이동은 자유로운 선택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한국 사회가 탈북여성들을 받아들이는 복지나 노동구조에서 이들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정책적 문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여성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동경로이다. 탈북여성들의 초기 정착 시에 성 서비스 영역 진입은 탈북인 지원에서 젠더 문제가 고려되지 않은 정책적 모순과 취약한 사람들끼리 연결된 사각지대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여성들은 북한에서의 힘든 생활과 긴 탈북과정에서 오는 신체적, 정신적 여건으로 인해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강도를 견디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 사회 적응에서 정착 초기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했고, 다양한 일자리에 참여했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고 성 서비스 영역으로 진입했다. 이것은 탈북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 부적합한 제반 여건을 간파하고 상대적으로 돈을 쉽게 벌수 있는 성 노동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 서비스 영역의 참여 탈북여성들은 신체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직업의 성격상 수치스럽고 신상이 노출될까 봐 두려워하는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이 하는 이 ‘일’이 복에 있는 가족뿐 아니라 남한의 탈북인 사회에 알려질까 봐, 탈북인을 관리하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성매매 참여 현장에서는 남성으로부터 폭력, 갈취, 성병 등에 노출될까 봐 두려움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다. 참여여성들은 성 서비스 영역에서 자존감 낮아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죄의식을 느끼는 경험과 함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자기지지의 생존전략을 보인다. 이들은 남한 사회에서 성 서비스 영역에 참여하며 원거리 가족들을 위한 송금조달 문제를 해결하면서 심적 고통을 가족을 위한 ‘희생’으로 정당화하고 있었다. 이들 중에는 성 서비스 영역을 단기간의 돈벌이 방편으로 삼은 사례와 혹은 간헐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활용하는 사례, 지속적인 수입의 방식으로 지속되는 사례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복에 남은 가족과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희생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전략의 맥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고난의 행군’ 이후 변화한 북한은 자본화가 진행 중이며 사적 이익을 앞세운 개인들이 출현하게 되었지만 여성희생으로 남성을 떠맡드는 가부장적 질서가 해체되지 않고 가족규범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과거 한국이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보였던 가부장 질서하에서 요구되고 실천된 여성 희생담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남한

사회에서 여성의 희생이 미덕으로 요구되는 것이 과거의 풍경이라면, 북한 사회는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가족을 중심으로 여성의 희생을 덕목화해 왔고, 현재도 규율로 작동하고 있다. 이 여성들이 동 직종의 남한 여성들과 차별점은 북한에서 규범화되어 온 여성으로서 가족 실천과 한국 사회로 유입을 위한 브로커 비용 지급이 큰 어려움으로 작동한다는 점이었다. 가족 규범 속에서 자신을 희생시켜야 한 탈북 ‘심청이’들은 과거 한국 사회의 익숙한 풍경이자 동시에 분단체제가 만들어 낸 생경한 풍경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여성들에게 나타난 가족 속에서의 규범에 따른 희생적 수행은 북한 여성이라는 특수성보다는 한국 사회가 경험한 과거의 가족문화와 겹쳐진다. 산업 사회로 진행 과정에서 딸이기에 아들을 위해 여성의 희생을 요구하던 남성 중심 한국 사회의 과거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성 서비스에 참여한 탈북여성들은 행위자로서 물리적 공간인 국가 간 경계를 넘었을 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는 생존을 위해 심리적 사선을 넘나들고 있었다. 분단체제에서 탈북여성들의 정착 초기에 이루어지는 성 서비스 영역으로 진입은 한국 사회가 탈북인의 정착 지원에서 젠더 문제를 고려하는 촘촘한 지원이 필요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들의 목소리는 분단체제를 가로 지르는 위계적 가족실천과 남성 중심의 성 문화가 덧대어져 탈북여성들을 소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접수: 10월 12일 / 수정: 12월 3일 / 채택: 12월 7일

## 참고문헌

### 1. 국내 자료

#### 1) 단행본

윤택림,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서울: 아르케, 2004).

임순희, 『북한 여성의 삶: 지속과 변화』(서울: 해남, 2006).

임순희·윤인진·양진아, 『2016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북한인권정보센터, 2017).

#### 2) 논문

김재엽·김희진·조영시·B. Gantuya, “탈북여성의 유흥업소 및 성매매 유입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사회과학연구』, 21권 1호(2013), 76~113쪽.

김숙이, “20~30대 ‘매춘여성’의 생애 이야기: 생존전략과 경제넘기의 행위성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김용화, “성매매 여성의 탈 성매매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22권 3호(2010), 45~75쪽.

박현선, “경제난 이후 북한 가족의 사회연결망 강화전략,” 『한국문화연구』, 2권(2002), 141~171쪽.

변혜정, “성적 거래의 변형과 확산의 정치학: ‘성교없는 성상품’ 업소(자유업)에서의 거래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연구』, 25권 3호(2009), 109~149쪽.

이나영, “기획서평: 성매매를 여성주의적 입장 ‘들’로 ‘읽는다’는 것의 의미,” 『경제와 사회』, 77호(2008), 264~269쪽.

이미경, “경제난 이후 북한여성의 삶과 의식변화와 한계: 탈북여성과의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엮음, 『북한의 가족과 여성』(서울: 경인문화사, 2006).

유정희, “세계화시대 유럽의 이주여성,” 『여성과 역사』, 9권(2008), 195~229쪽.

최봉대·구갑우, “북한도시 ‘장마당’ 활성화의 동학,” 최완규 엮음, 『북한도시의 위기와 변화』(과주: 한울, 2006).

3) 신문

『인천일보』, 2017년 10월 30일, <http://www.incheonilbo.com/>.

4) 기타 자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 <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KBS 뉴스, 2015년 11월 28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89964&ref=D>

KBS 뉴스, 2017년 4월 15일, <http://news.kbs.co.kr/news>.

TV조선 뉴스판, “성매매 탈북 여성 티켓다방 실패,” 2017년 1월 26일.

## Competition and Survival Strategy of North Korean Defectors Participating in Sex Service Area

Kwon, Keum Sang(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This study examines the contradictions and survival methods in 'work' through women participating in the sexual service area among the main North Korean defectors. For this reason, I have studied the reason why the North Korean defectors came to Korea, the background of entering the sexual service area, the competition and the way of survival built in everyday life. As a result of the research, all of them have not participated in sex service related area in North Korea. They were experiencing psychological divergence not only in the physical crossing of the border, but also in the diabolical labor field of the taboo. Most of these difficulties encountered in Korean society were due to the problem of payment of brokerage cost in the early stage of settlement and the obligation to remit to remote families in North Korea or China. Also, due to the nature of deviant labor, low self-

esteem and shame work. These women are taking a survival strategy through self-support and justification of the women's sacrifice view that they are taking care of for the remote families in the North and China. The activities of poor North Korean women in sexual service work are producing a new gender landscape of the divided society.

Keywords: North Korean refugee women, sexual service area, long distance family, competition, survival strategy